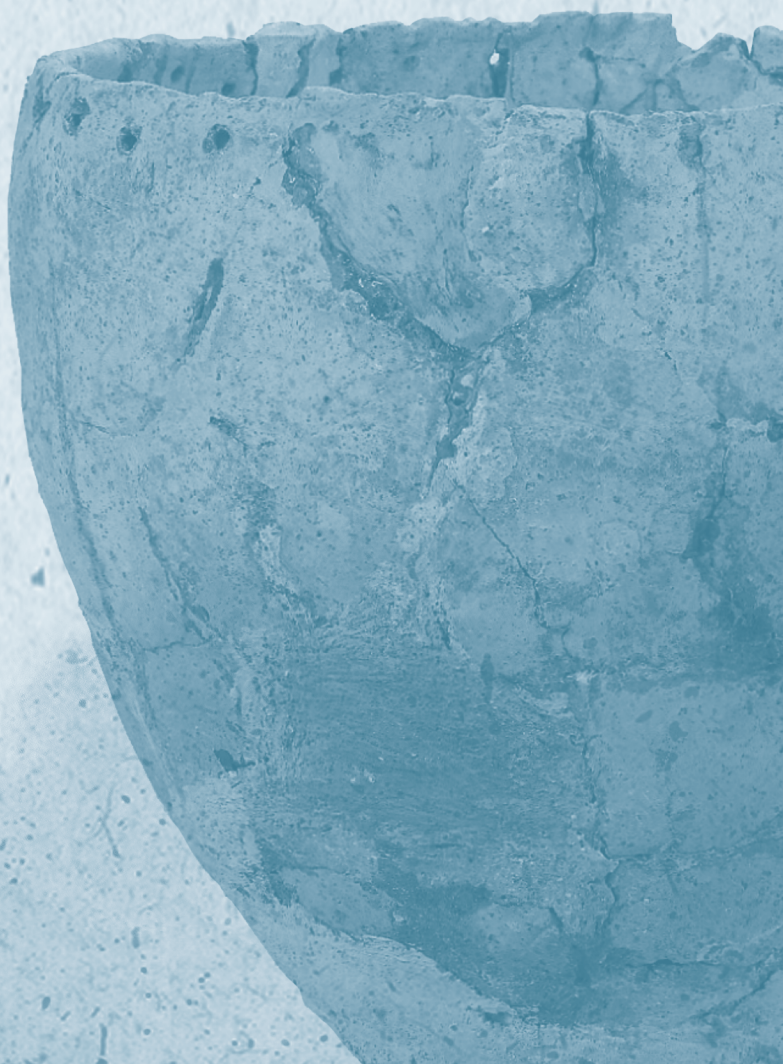


공렬토기문화와 역삼동유형

이청규 (영남대학교 문화인류학과)



공렬토기문화와 역삼동유형

이청규 (영남대학교 문화인류학과)

I. 머리말

한국 고고학에서는 물질적 자료를 분류하는 방식이 다종다양하지만, 일정 유구에서 동반하여 출토하는 유적유물갖춤새를 토대로 문화, 문화유형, 혹은 유형이라는 개념을 사용하는 사례가 유달리 청동기시대 분야에서 두드러진다. 그런데 연구자마다 나름대로 개념을 각기 달리 제시하거나 명확한 규정 없이 작위적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적지 않아 혼란스럽다. 대체로 그 분류 표지로써 일정 형식의 토기 혹은 토기군을 제시하고 있는 바, 특히 이번에 논의의 주제가 되는 공렬토기 혹은 역삼동식 토기와 문화와 유형 개념이 그 대표적인 사례이다. 잘 아는 것처럼 동 문화 혹은 유형은 혼암리유형의 개념과 맞물려 그 기원과 선후관계에 대해서 서로 다른 주장이 맞서고 있는 것이다.

1980년대 후반에 발표자가 남한에서 유형이라는 개념을 본격적으로 사용한 것은 당대 문화의 시간적 변천에 대해서 토기 형식을 표지로 설명하되 토기 이외의 공반 유구, 유물에 대해서 조사연구가 확대되기를 바라는 관점이 었다. 비록 표지유물로 토기를 활용할 수밖에 없지만 공반하는 유적유물군을 총체적으로 논의하고자하기 위함이 었다. 당시는 한반도 남부에 역삼동식토기를 비롯하여 가락동식과 송국리식 토기 등의 무문토기를 내는 마을 유적의 숫자가 극히 적었다. 실제로 각 형식의 토기를 표지로 한 무덤은 물론 집자리 형식 등의 파악이 거의 이루어지지 못한 상태였던 것이다.

최근에 들어서 풍부해진 발굴자료를 토대로 여러 연구자들에 의해 당시에는 충분하지 않았던 자료를 근거로 제시한 애매모호한 개념이 보다 구체적으로 정리되고 있다. 이에 힘입어 청동기시대의 지역 사회와 문화가 보다 내실 있게 설명되고 있는 추세이다. 그러한 논의를 지켜보면서 무엇보다도 기본적인 개념 정리가 더욱 명확하게 규정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어 이 발표를 준비하게 되었다. 고고학자료를 토대로 한 개념은 그 자체로써 명확하게 규정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을 뿐만 아니라 그동안 유지 발전했던 개념을 전면적으로 수정하는 것이 오히려 더 큰 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으므로 이를 고려하여 기왕에 여러 연구자들에 의해 이루어지 제안을 나름대로 인정하면서 수정 보완하자는 것이 필자의 생각이다.

또한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원론적으로 따져서 유형과 비슷한 개념이 적어도 주변의 다른 나라 고고학계에서 어떻게 규정되고 사용되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 중국고고학에서 말하는 문화와 유형과는 어떻게 다르고, 일본에서의 문화와 야요이 시대의 양식, 형식이라는 개념과는 어떻게 대응되는지 논의되어야 할 것이다. 더 나아가 일찍이 유럽고고학에서 통용되는 고고학적 문화나 양식의 개념과 관련하여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고민할 필요가 있으나, 이번 발표에서는 이에 대해서 제대로 논의되지 못하였음을 미리 밝혀둔다.



II. 문화와 유형

한국 청동기시대에서 유형을 이해하는데, 무엇보다도 문화의 개념과 관련하여 검토하지 않으면 안 된다. 문화라는 개념은 역사학 등 여러 분야에서 두루 사용되고 각기 다른 의미를 갖고 있지만 잘 알려지다시피 근대이후 유럽에서 인류학이라는 학문이 발전하면서 이를 전략적인 개념으로 사용하게 된다.

인류학의 고전적인 정의에 따르면 문화는 일정한 인간집단이 공유하는 생활양식의 총체이다. 물론 이는 문화에 대한 초보적인 수준의 이해와 설명으로서 과연 이러한 개념의 문화가 실재하는지에 대해서 비판적인 관점이 적지 않다. 무엇보다도 관념론의 입장이 그러한데, 이에 따르면 문화는 추상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대상이며 구체적인 실물으로써 증거를 제시하기가 어렵게 된다. 일정한 문화에 대해서 그 경계나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하기 어렵지만 일반적으로 일정 지역에 있는 일정주민 집단에 의해 공유되는 여러 생활방식과 그 산물이 실재하고 있음은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문화의 개념은 당연히 현재는 물론 과거의 인류사회에도 해당되므로, 고고학에서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개념이다. 다만 현재 생존하는 주민집단처럼 직접 관찰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고고학에서 주로 다루는 상고시대가 가까운 과거가 아니므로 역사기록에 제대로 전하지 않기 때문에 더욱 그 시대의 구체적인 내용을 파악하기도 어렵다. 그나마 과거 주민들에 의해서 기록되고 오늘날까지 전하는 물질적 자료를 통해서 접근이 가능한 것이다. 그럼으로써 고고학에서 설명하는 문화는 직접적으로는 물질적 혹은 가시적 측면에 치중할 수밖에 없고 이를 근거로 하여 간접적이고도 제한적으로 이데올로기, 종교, 사회, 정치 등의 비가시적인 측면을 설명할 수밖에 없다.

잘 알려지다시피 이러한 고고학적 문화는 일정집단에 의해 공유된다는 측면이 부각되어 19-20세기에 유럽에서 종족 혹은 민족 집단을 이해하는 도구적 개념으로 이해되었다. 그러다가 게르만을 치켜세우고 유대인을 공격하는 등 지나치게 정치 군사적으로 악용하는 사례가 발생하면서 동 개념에 대한 비판적인 관점이 강하게 제기된다. 지금도 유럽에서는 청동기시대와 철기시대에 걸쳐 할슈타트문화, 라텐느문화 등 고고학적 문화의 개념이 활용되지만, 그것은 종족에 직접 대응시키기 어렵다는 비판적인 인식이 크다. 또한 그자체가 명확하게 존재하는지도 논란이 되고 있는 켈트 혹은 게르만에 대응되는 고고학적 문화도 단일하지 않고 여러 문화에 두루 걸치는 등 일정문화를 곧 일정 집단에 해당된다고 보지 않는다.

그러한 문제가 있지만 세계 각국에서 고고학적 문화의 개념과 내용에 대해서 꾸준히 논의되고 있으며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그 무대가 되는 지리적 범위를 규정하지 않을 수 없다. 상고시대에 일정집단이 점유하는 공간적 범위는 사회적 발전단계로 보아 소규모 공동체일수도 있고 고대국가 단계 이후의 영역국가 더 나아가 여러 국가를 아우르는 제국 수준에 따라서 각기 다른 공간적 범위가 상정된다. 또한 구성원간의 친연 관계 혹은 정체성을 살펴 소규모 혈연집단으로 이루어진 씨족, 다수의 혈연집단으로 구성되지만 동질적인 정체성을 갖춘 종족, 더 나아가 그 개념에 대해서 다양하게 해석이 있는 다수의 종족으로 구성된 민족 수준에 따라서 각기 다른 공간적 범위로 설명할 수도 있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가장 광역적인 범위에서는 가변적이고 추상적인 것이기는 하지만 민족이라는 개념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민족은 근대국가 이후에 형성된 개념이다. 그 계승관계가 일정하지 않고 후대와 동질적인 집단이라고 할 수 없으나 우리나라의 경우 다른 나라의 대부분도 마찬가지이지만 적어도 족장 혹은 군장사회가 형성되는 청동기시대 이전까지 거슬러 올라가 그 기원과 출자를 살필 수 있다는 것이 필자의 생각이

다. 이에 대해서는 우리나라에서 고대사분야와 사회학 분야에서 원민족 혹은 선민족의 개념으로 접근하기도 한다. 동 집단은 종전의 단순 혈연사회 혹은 씨족공동체 수준을 넘어 나름대로 초보적이거나 지도자가 출현하고 집단적 이데올로기나 정체성이 강조되는 사회라고 할 수 있겠다.

그러한 관점에서 청동기시대를 전후하여 나름대로 일정한 정체성을 공유하고 동일한 상징적 혹은 표지적 유물을 공유하는 다수의 집단이 존재한다고 하면 그 집단이 분포하는 공간적 범위를 단일 문화의 영역이라는 관점에서 접근할 수 있을 것이다. 대체로 이와 관련해서 일정한 인구 집단 혹은 정치체의 명칭이 구전으로 전하다가 기록되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가장 광역적인 수준의 공간적 범위를 편의적인 것이기는 하지만 영역이라고 할 때, 이 영역의 지리적 공간에서 전체를 아우르는 하나의 고고학적 문화가 존재한다고 가정할 수 있다. 많은 문제점이 있지만, 이를 통해서 일정 영역 내외의 집단 간에 상사성과 상이성, 혹은 물질문화의 교류에 대하여 논의할 수 있는 단초가 마련된다고 하겠다. 당연히 상사성이나 교류의 긴밀도는 영역 안쪽과 바깥쪽의 집단 간에 다르게 나타나며, 전자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확인되는 것을 전제로 한다.

이렇게 너른 영역의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문화는 보다 좁은 지역의 경우보다 느슨하게 규정될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영역의 문화가 바뀐다고 하면 그것은 곧 시대가 달라짐을 말하는 것이다. 일정한 시대에 대해서는 그 구분의 기준으로 여러 잣대를 제시할 수 있는데 주지하다시피 고고학에서는 역사이전에 가장 일반적인 경우 재질을 통한 삼시대법에 토대를 둔 것으로 신석기시대, 청동기시대, 철기시대 등이 있다. 또한 토기군을 기준으로 하여 시대를 규정할 수도 있는 바, 그러한 사례는 아시아는 물론 유럽 등 전 세계에 걸쳐 널리 알려져 있다. 일본의 죠훈시대, 야요이시대가 그러하며, 우리나라의 경우 앞서 삼시대법 이외에 종종 활용되는 빗살무늬토기시대, 무문토기시대의 개념이 이에 해당된다.

이러한 광역적인 공간, 곧 상위의 영역 내에는 많은 인구집단이 군집을 이루고 있으며 일정한 공간적 범위를 나누어 점유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하위의 공간적 범위 곧 일정 지역별로 자리를 잡은 인구집단에 의해 이룩된 생활 양식의 총체도 문화의 수준에서 설명할 수 있음은 물론이다. 대체로 한 시대를 3-5개의 시기로 구분할 수 있는데 그중 한 두 시기에 걸친 유적유물갖춤새를 지역문화라는 개념으로 또한 설명할 수 있다. 따라서 앞서 상위 영역에서 단수였던 문화가 하위 수준에서는 다수의 지역문화로 세분될 수 있는 것이다. 바꾸어 말하면 영역적인 수준에서 일정한 시대에 걸쳐 지속된 동일한 문화라 할지라도 지역적인 수준에서 일정 시기 내에서 각각 구분되는 하위문화가 존재한다.

다음 지역문화를 구성하는 유적유물복합체로서 유형이라는 개념이 고고학적으로 상정할 수 있으며, 실제로 많은 연구자들이 각기 의미를 달리하지만 널리 사용하고 있다. 바꾸어 말하면 고고학에서 전략상 쓰는 개념이지만 총체적이고도 일정 집단에 의하여 일정 시기 공유된 문화인지 아직 명확하지 않은 단계의 유적유물복합체를 가리키는 것이다. 그것은 별도의 지역문화로 인정할 만큼 분명하지 않거나 시공간적으로 확정짓기 어려운 경우이다. 또한 일정한 재질별로 여러 기종이 복합된 ASSEMBLAGE 혹은 INDUSTRY를 유형의 개념으로 접근하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다수의 유적유물복합군으로 이루어져 문화라고 부를 수 있는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이러한 경우를 유형 개념보다는 형식, 형, 식 등으로 구분할 필요가 있다, 더 나아가 한국 고고학에서는 문화와 유형의 개념을 혼용해서 쓰는 경우가 많은데 이 또한 엄격하게 구분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발표자의 생각이다.

중국에서도 우리나라처럼 문화와 유형의 개념을 고고학에서 수용하고 있다. 또한 대체로 광역적 공간에 걸쳐



토기를 지표로 하여 설정되는데, 신석기시대의 용산문화, 양소문화, 중국동북지역에서는 홍산문화 등이 그 대표적인 사례이다. 유형의 개념은 문화보다 하위의 개념으로 이해되기도 하지만, 한편으로 문화적 단위로 분명하게 인식하기에 고고학자료가 충분하지 않을 경우 유형의 개념을 사용하기도 한다. 중국 동북지역의 일정 집단의 청동기문화를 가리켜 십이대영자유형, 신성자유형이라고 하다가 십이대영자문화, 신성자문화로 변경한 사례가 바로 그것이다.

일본의 경우 고고학적 문화는 일본 전체의 공간적 범위를 대상으로 하고, 하위 지역의 개념으로서 문화를 사용하지 않는 것이 대체적인 추세이다. 일본전체의 야요이문화는 있지만 그 하위문화로서 소바타문화, 이타츠케문화라는 개념을 사용하지 않는다. 다만 토기를 지표로 한 소바다식, 이타츠케식이라는 양식 혹은 형식에 가까운 개념만 활용될 뿐이다. 따라서 일반적인 일본 고고학자들의 관점에서 보면 한국고고학에서 신석기시대, 청동기시대에 각각 빗살무늬토기문화, 무문토기문화만 있을 뿐이지 그 하위의 지역문화이나 유형의 개념은 낯선 것이다.

Ⅲ. 무문토기문화의 공렬토기문화

청동기시대를 포함하여 한국고고학에서 문화의 개념을 따질 때 당연히 인접한 영역의 상위문화와의 관계가 먼저 설명되어야 한다. 그러나 각 시대마다 문화의 영역이 다름으로 여러 시대에 걸쳐 동일한 공간적 범위를 고정하여 살피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렇다고 하여 오늘날의 국경 개념으로 상고시대의 고고학적 범위를 규정하는 중국고고학과 일본고고학의 관점은 한국에서는 받아들이기 어렵다. 무엇보다도 한반도와 함께 오늘날 중국 국가의 영토 일부인 중국 동북지역을 한국 고고학 전체의 문화 영역으로 다루어야 한다. 앞서도 지적하였듯이 그것은 한국 고대사에서 민족의 기원이나 출자를 논의할 수 있는 공간적 범위로서 이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전적으로 고고학적인 관점에서 조망한다 하더라도 청동기시대에 중국 동북지역에서는 현재 한글을 사용하는 한민족이 주도한 국민국가(분단된 특이한 상황에 놓여 있지만)가 위치한 한반도와 공통된 물질문화가 분포하였다. 섬나라인 영국이나 일본의 경우 고고학적 문화를 살필 때 상대적으로 그 지리적 경계가 뚜렷하지만, 유럽 대륙의 다른 나라 경우 근대 국가의 영토와 그 이전의 상고시대 고고학적 공간적 범위가 일치하지 않다. 따라서 현재의 영토에 국한하는 것이 아니라 동 지역의 문화와 연결되는 인접지역의 고고학적 문화를 각국 고고학의 연구 대상으로 포함시키는 것은 물론이다.

문제는 앞서도 지적하였듯이 일정한 시대 일정한 공간적 범위의 유적유물갖춤새를 구성하는 모든 요소를 살펴 이러한 상위영역의 문화를 규정할 수 없다는 데에 있다. 토기, 석기, 청동기 등의 유물과 집자리, 무덤, 의례 공간 등의 유구를 두루 살펴야 총체적으로 당대의 고고학적 문화를 제대로 설명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자료의 성격상 이들 모두를 똑같은 비중을 둘 수 없으므로 그중에서 상대적으로 관련자료가 풍부하고 집단 자체의 정체성을 잘 표현하는 것으로 이해되는 문화요소를 표지유물 혹은 유구로서 살필 수밖에 없다. 그것은 고고학적으로 발굴된 성과가 충분하지 못할 경우 더욱 그러하다.

이러한 맥락에서 청동기시대에 광범위하게 제작 사용되는 무문토기가 무엇보다 중요한 지표가 된다. 그것은 적갈색 사질 태토에 평평한 바닥을 갖추고 호형과 심발형, 완형을 주된 기종으로 하고 일부 고운점토에 결면을 마연한 기종을 포함한 토기군으로서 한반도는 물론 요서지역과 송화강유역 남쪽 그리고 연해주 남쪽을 포함하는 중국

동북지역에서도 널리 분포한다. 원래 무문토기라는 개념은 일본 연구자들이 창안한 개념으로 한국고고학계에서는 그것을 계승하고 확대 사용하고 있지만 북한에서는 이를 거의 사용하지 않고 있다. 일반적으로 무문토기를 이름 그대로 무늬가 거의 장식되지 않고, 나름대로 구분되는 제작기술의 측면을 강조하여 중국동북지역을 제외하고 한반도 지역 토기만을 그 대상으로 삼는 연구자의 관점도 있다.

그러나 앞서의 지리적 영역의 무문토기라 부를 수 있는 토기군은 같은 시대에 대체로 중국 요하 서쪽에서 성행한 세발 달린 삼족기를 동반하는 토기군과 요하 북쪽 혹은 송화강 중 상류 이북의 기하학적 무늬가 그릇 전면에 뾰뾰하게 장식된 토기군과 구별되는 것이다.

물론 요하 동쪽 혹은 송화강 남쪽에도 삼족기나 복잡한 기하학무늬가 장식된 토기가 같은 청동기 시대 이른 시기에 공반된다. 요서 지역의 고태산 삼족토기나 압록강유역의 신암리 토기, 두만강 지류의 흥성 토기가 그 대표적인 사례이다. 이러한 형식의 토기는 앞선 신석기시대의 토기 속성을 이어받거나 다른 지역으로부터 전이된 외래토기일 가능성이 높으며, 따라서 이들 지역에 널리 보이는 평저 무문양 토기를 한반도와 같은 무문토기의 범주로 포함하여 설명할 수 있다.

청동기시대에 무문토기가 등장한 후 얼마간 지나서 이러한 중국 동북지역과 한반도 무문토기 분포 영역에서는 비파형동검이 고루 분포한다. 세계 전 지역에 청동기를 대표하는 것은 무기로 그중에서도 특히 동검이다. 동검은 일정 영역마다 보급되는 형식이 달라서 몽골과 중국, 한반도로 이어지는 지역에는 각기 다른 형식이 제작 성행한다. 곡린 검신에 동물형 장식검병의 합주식동검은 북방식, 직린 검신에 유병식 검병의 중원식과는 별도로 비파형에 동대가 있고, 슴배가 딸린 별주식의 동검이 동 지리적 영역에 보급된다. 물론 이와 비슷한 속성을 갖춘 동검은 남부 시베리아와 중국 지역은 물론 유럽과 중동지역에도 분포하는데, 그와는 여러 세부 속성에서 큰 차이가 있다.

이밖에 중국동북지역과 한반도를 걸치는 무문토기문화 영역에서 돌을 다듬어 구축한 무덤이 널리 조성되는데 석관묘와 지석묘가 그 대표적인 사례이다. 석관묘는 이 지역에서 청동기시대에 훨씬 앞서 신석기시대 요서와 내몽고 동남부에서 확인되는데, 그 대표적인 사례가 홍산문화의 우하량 사례이다. 그러므로 이를 중국동북지역과 한반도 석관묘의 원류로 이해하는 관점도 있지만, 청동기시대에 들어와 하가점하층문화의 사례에서 보듯이 동 지역에서는 토광묘가 유행하는 격차가 존재한다. 석관묘는 일부 지역에서는 지석묘로 발전하는데, 기본적으로 이러한 돌무덤은 중국동북지역과 한반도에 공통되는 것이다.

한마디로 말하면 대체로 무문토기라고 불리는 소성도가 낮은 평저의 적갈색 사질토기, 비파형동검이라고 불리는 비파형 검신에 병부가 별도로 장착되는 동검, 그리고 돌로 벽석을 쌓은 석관묘 등을 표지로 한 고고학적 문화를 한국 청동기시대의 최상위 영역의 문화로 이해할 수 있다. 이러한 무문토기-비파형동검-석관묘를 기본으로 하는 고고학적 문화의 영역 내에서 보다 짧은 기간에 각 하위지역마다 일정한 변이가 있어 지역문화라 일컬을 수 있는 유적유물복합체가 존재하는 것이다.

상위의 영역문화 그 하위의 지역문화의 특징을 가장 잘 보여준다고 판단되는 표지유물은 대부분 토기이다. 토기는 같은 기종 중에 장식 문양과 그릇 형태, 그리고 태토성형과 표면처리 등에서 다양한 속성을 보여주고 이들 속성으로 토기군이 포함되어 있다. 그러한 토기속성이 일정한 지리적 범위, 곧 지역 내에서 발견되는 토기군에 반복적 혹은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현상이 확인된다. 하나의 단일 기형의 관점에서 보면 그것은 같은 형식에 속하는 것이지만, 여러 기종에서 공통되는 현상을 확인하면 그것은 형식보다 상위의 개념으로 설명해야 된다. 그러나 실제로 단일 기종에 보이는 특징에 중점을 두고 논의하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일정한 형식의 토기 혹은 토기군을 지표로



하여 과연 진정한 의미의 문화를 제대로 설명할 수 있는가 하는 의문이 따를 수밖에 없다.

바꾸어 말하면 문화를 구분함에 단일 기종의 형식보다는 다수 기종의 형식 복합군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한 바, 그것은 특정의 속성과 형식에 치중하여 문화를 분류하였을 경우 자칫 그 시간적 공간적 범위는 물론 그 문화의 정체성을 잘못 판단할 수 있을 위험성이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정의 속성과 형식에 치중하여 문화나 유형을 이해하는 사례가 적지 않은 것은 그러한 분류작업 자체가 보다 간단하고 이해하기 쉽기 때문이다.

여하튼 무문토기문화가 분포한다고 하는 중국동북지역과 한반도에 걸쳐 다수의 문화가 확인되며, 그중에 하나가 이번 논의 주제가 되는 공렬토기문화이다. 이 문화는 공렬장식을 대표적인 속성으로 하는 심발형을 비롯하여 호형, 발형의 조질토기와, 그리고 적색마연 토기군을 지표로 한다. 발형과 호형이 기본 갖추새로서 이중구연에 단사선 장식의 팽이형토기문화, 외반구연 장동호를 표지로 하는 송국리토기문화 등과 쉽게 구분된다.

최근에 한국청동기학회에서는 청동기시대를 초기-전기-중기-후기로 구분하는 안이 제시되었다. 초기는 미사동식 돌대문토기, 전기는 역삼동식공렬토기, 중기는 송국리식 외반구연호형토기와 검단리식의 횡점렬문 토기, 그리고 후기는 수석리식의 점토대토기를 표지로 한다. 그렇지만 각 형식의 토기 혹은 토기군이 각 시기에 정확하게 대응하거나 앞서거나 뒤의 시기에 없는 것은 아니다. 특히 역삼동식 공렬토기는 그 시간적인 폭이 여러 시기에 걸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들 토기 혹은 토기군을 표지로 하여 각각의 독자적인 지역문화가 설정될 수 있는 것으로 이해되는 바, 미사동문화 혹은 돌대문토기문화, 역삼동문화 혹은 공렬토기문화, 송국리문화, 검단리문화(검단리 유형이라고 일반적으로 불리기도 하지만), 수석리문화 혹은 점토대토기문화가 바로 그것이다.

IV. 공렬토기문화와 역삼동유형

1960년대에 발굴조사된 역삼동유적에서 세장방형주거지와 함께 공렬토기가 출토되어 이를 표지로 한 청동기시대 유적유물군을 통틀어 공렬토기문화에 소속시킬 수 있다. 앞서 정의한 상위의 문화와 하위의 유형 개념에 따르면 역삼동문화는 곧 상위의 공렬토기문화이고 역삼동유형은 동 문화에 속하는 하위 유적유물군이 된다. 그러나 잘 알려진 것처럼 1980년대에 이와는 별도로 혼암리유형은 공렬장식에 이중구연 단사선의 가락동식토기의 속성이 융합된 형식의 토기군을 지표로 한 유적유물군을 지칭한 바 있다.

이처럼 토기 세부형식을 표지로 하여 동반된 유적유물갖춤새를 역삼동유형과 혼암리유형으로 분류한 바 있으나, 근래에 들어와서 양자를 구분하기 애매한 경우가 많을 뿐만 아니라 그 시간적 변천과 지역적 분포를 설명하는데 혼란이 있음은 많은 연구자들이 지적한 바 있다. 그래서 그 선후관계가 역삼동유형-혼암리유형에서 그 반대가 되는 혼암리유형-역삼동유형이라는 설명으로 바뀌거나 아예 양자를 통합하여 역삼동 혼암리 유형으로 설명하자는 주장이 제기된 것이다.

최근에 들어 발굴조사된 마을 유적의 숫자가 급격히 증가하면서 이들 형식의 토기군이 출토되는 집자리가 일정 시기와 지역에 따라서 정형화된 구조를 갖춘 사실이 확인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집자리의 형식을 기준 삼아 구분하는 것이 가능하고, 주거양식이 일정 집단의 문화를 이해하는데 중요한 지표중의 하나이므로 이를 기준 삼아 유형을 구분할 수 있다 하겠다. 실제로 많은 연구자들이 주거지 형식에 중점 두어 제시한 여러 유형이 있는데, 백석동 유형, 조동리유형, 반송리유형 등(물론 이 발표문에서 정의하는 유형 개념과는 차이가 있지만)이 바로 그것이다,

심지어는 공렬토기문화가 아닌 송국리문화의 사례이지만 주거지형식이 오히려 문화를 규정하는 표지적 자료로서 활용되기까지 한다.

집자리 형식을 기준으로 유형을 설정하여 일정지역이나 시기의 지역집단의 동향을 설명한 사례를 보면 충주 조동리 마을 유적에서 확인된 장방형 평면에 위석식 화덕이 있는 집자리가 있다. 이 경우 혼암리식 토기군이 나오지만 조동리 유적의 이름을 따서 조동리식 주거지로 하고 이를 기준으로 한 마을유적을 조동리 유형으로 규정하여 설명하고 있다.

또 다른 사례를 들어 보면 세장방형에 다수의 구덩이식 화덕을 갖춘 형식의 집자리가 다수 출토한 천안 백석동 유적을 표지로 하여 백석동 유형이 설정된 바 있다. 동 형식의 집자리는 영서 지역은 물론 호서 서부지역에 집중적으로 확인되고, 간헐적으로 영남 남부 지역까지 확인된다. 이밖에도 널리 알려진 사례로서 역삼동식 주거지, 천전리식 주거지, 반송리식 주거지를 표지로 한 유적유물군이 있는 것이다.

이러한 추세에 맞추어 발표자는 공렬토기문화의 하위유형을 설정함에 집자리 형식을 표지로 활용 하는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문제는 일정시기에 일정지점에 같은 공렬토기문화에 속한 집단의 마을 유적 중에서 집자리가 단일 형식만 확인되는 경우도 있지만, 여러 형식이 확인되는 사례가 적지 않다는 점이다. 평택 소사동 마을 유적의 경우 거의 세장방형의 평면 형태에 구덩이식 화덕이 다수 있는 바, 이는 전자의 사례에 해당된다. 그러나 후자의 대표적인 사례로서 백기가 넘는 집자리가 발굴조사된 화천 용암리 마을유적이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크게 세장방형의 A식, 장방형의 B식, 그리고 방형의 C식 집자리 다수가 확인될 뿐만 같은 A식이라 하더라도 크기와 형태가 각기 달라 3개의 하위형식으로 분류되는 것이다. 이와 같은 현상은 최근에 발굴조사된 춘천 중도유적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물론 동 유적은 청동기시대 전기후반에서 중기에 해당되는 것이어서 시간적 변천과정을 고려한다고 하면, 각 시기에 속하는 집자리의 형식이 줄어들겠지만, 그래도 여러 형식의 집자리가 있는 셈이다. 그것은 무엇보다도 각 가옥의 거주자의 세대수 혹은 사회경제적 역량이나 지위에 따라서 집자리의 규모나 형태가 달라질 수 있음을 반영하는 것이다. 또한 용담동 보고서에도 제시되었다시피 주거지의 용도가 일반생활용인지, 특수공방용인지, 더 나아가 마을 자체의 성격과 규모에 따라서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다.

이러한 집자리군의 현상은 실상 토기군의 경우와도 맥락을 같이 한다. 주지하다시피 일정한 시기의 일정한 집단에서 제작 사용되는 토기는 용도에 따라 다양한 기종을 갖추고 있다. 그중에서 문화나 유형을 가름하는 표지로서 일정 기종의 일정 형식에 주목하는 것처럼 주거지의 경우도 용도에 따라 다양한 크기와 형태가 있는데, 그중에 표지적인 속성을 갖춘 주거지에 중점을 두어 유형을 분류한다는 것이다. 앞서도 지적하였다시피 일정한 토기의 세부 형식 혹은 속성에 치중하여 문화를 분류하는 것은 매우 편의적인 것이다. 표지유물을 기준으로 분류된 유적유물갖춤새가 어떠한 의미와 성격을 갖고 있는지 심각하게 고민할 필요가 있지만, 그러한 고민을 염두에 두고서 집자리 형식을 기준으로 한 유형 분류를 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것은 일정 형식의 토기군을 기준으로 하는 작업보다 쉽지 않을 수 있는데, 마을유적의 규모와 성격에 따라서 매우 다양하게 주거지 형식이 결합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일정한 주거지 형식의 결합 상태 그것은 마을 단위를 기준으로 분류하는 것과 다르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토기의 세부형식보다는 주거지 형식과 주거지군을 표지로 하여 유형을 분류할 때 사회적으로 더욱 의미가 있는 해석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된다.



V. 맺음말

지금까지 발표한 광역적 수준에서의 무문토기문화, 지역적 수준에서의 공렬토기문화, 그리고 문화의 하위 수준에서 유형의 설정에 대한 논의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한민족의 기원 혹은 선민족, 원민족과 관련된 청동기시대의 문화는 중국동북지역에서 한반도, 제주도를 공간적 범위로 한다. 동 영역에 다른 문화권과 인접한 지역에 외래계 삼족토기 혹은 기하학문토기가 일부 들어오고 신석기시대 이래의 전통적인 토기가 계승되지만 기본적으로 무문의 적갈색 사질토기와 마연토기를 표지로 하는 무문토기문화가 형성되었으며, 토기 이외의 다른 주요 문화의 특징적 요소로서 약간의 시차를 두고 청동기로서 비파형동검과 무덤으로서 석관묘가 널리 유행한다.

그러한 무문토기문화의 영역 내에 일정 시기에 각 지역을 범위로 하여 하위문화가 발전하였는데, 남한지역의 경우 초기에 미사동식의 돌대문토기문화, 전기에 역삼동식의 공렬토기문화, 중기에 송국리식의 외반구연호형토기문화, 검단리식의 횡점렬문토기문화, 그리고 후기에 수석리식 점토대토기문화가 분포한다.

그중 공렬토기문화는 일부 호서 호남지역을 제외하고 남한의 전역에 전기부터 중기에 이르는 기간을 중심으로 분포한다. 이 문화에는 최근의 발굴조사를 통해서 고고학적으로 다양하고도 풍부한 유적유물군이 확인되었으나 일정시기와 지역의 양상이 분명하게 정리되지 못하여 앞서 문화의 개념이 아닌 고고학적인 도구개념으로 유형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그 분류의 기준은 토기의 세부형식을 고려하되 이미 많은 연구자들이 시도하고 있는 역삼동식, 백석동식, 천전리식, 조동리식, 반송리식과 그 밖의 다른 형식의 주거지 혹은 주거지군을 보다 적극적으로 내세울 필요가 있다 하겠다.

이를 통하여 공렬토기문화권 내에 여러 유형을 체계적으로 분류하고, 이를 토대로 하여 당대문화집단의 다양한 부면에 대하여 보다 용이하고 설득력 있게 설명할 수 있다고 생각된다.

| 참고문헌 |

- 공민규, 2013, 『청동기시대 전기 금강유역 취락연구』, 숭실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2014, 『청동기시대 전기 호서지역 취락연구(2)』, 한국고고환경연구소 학술총서 14, 서경문화사.
 김권구·공민규 편, 2014, 『청동기시대의 고고학 3-취락』, 한국고고환경연구소 학술총서 12, 서경문화사.
 김원룡, 1968, 「한국무문토기 지역분류 시론」, 『고고학』 제1집, 한국고고학회.
 김장석, 2001, 「훈암리 유형 재고:기원과 연대」, 『영남고고학』 28, 영남고고학회.
 나건주, 2013, 『청동기시대 전기 취락의 성장과 송국리유형 형성과정에 대한 연구-한반도 중서부지방 자료를 중심으로-』, 충남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박순발, 1999, 「훈암리 유형 형성과정의 재검토」, 『호서고고학보』 창간호, 호서고고학회.
 박영구, 2015, 『동해안지역 청동기시대 취락과 사회』, 서경문화사.
 박진일, 2013, 『한반도 점토대토기문화연구』, 부산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안재호, 2006, 『청동기시대 취락연구』, 부산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이백규, 1974, 「경기도 무문토기 마제석기-토기편년을 중심으로」, 『고고학연구』 3.
- 이수홍, 2015, 『청동기시대 검단리유형의 연구』, 함춘원.
- 이종철, 2016, 『청동기시대 송국리형문화의 전개와 취락 체계』, 진인진.
- 이청규, 1988, 「남한지방 무문토기문화의 전개와 공렬토기문화의 위치」, 『한국상고사학보』 창간호, 한국상고사학회.
- 김범철 외, 2015, 『한국청동기문화개론』, 진인진.
- 손준호 편, 2014, 『청동기시대의 고고학 5-도구론』, 한국고고환경연구소 학술총서 12, 서경문화사.
- 이형원, 2009, 『청동기시대 취락구조와 사회조직』, 서경문화사.
- 임병태, 1969, 「한강유역의 무문토기시대」, 『이홍직박사 회갑기념 한국사논총』, 이화여자대학교 사학회.
- 허의행, 2013, 『호서지역 청동기시대 전기 취락연구』, 고려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 2014, 『청동기시대 전기 호서지역 취락연구(1)』, 한국고고환경연구소 학술총서 13, 서경문화사.
- 황재훈, 2014, 『무문토기시대 전기 사회의 상호작용과 문화변동-한반도 중서부지 지역을 중심으로-』, 경희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後藤直, 1971, 「南朝鮮の 無文土器-その變遷について」, 『考古學研究』 19-3.
- 大寛靜夫, 1996, 「欣岩里類型土器の系譜論をめぐって」, 『東北考古學』 第2, 東北亞細亞考古學研究會.

